

# 전담반·장려금·양육비...인구 늘리기 '백약이 무효'

전남 자치단체들 8개월 총력전 불구 인구 수백명씩 줄어

장흥 4만·곡성 3만 아슬아슬...작년 증가 담양·구례 감소

백약이 무효인가. 전남 자치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지만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함평, 8개월간 해봤는데...> 함평군은 올 1월 '2017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월에는 '인구늘리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군 각 실·과·소와 읍·면 분야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같은달 인구늘리기 전담반을 6월 16일 당으로 꾸려 실효성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팀·담당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과제를 수립, 시행해왔다.

3월에는 인구늘리기 연석회의를 열고 인구늘리기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군수 명의로 관련 기관 등에 서한문을 보냈다. 4월에도 1분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8월에는 '2017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올 8월 말 함평 인구는 3만4309명. 지난해 12월 말 3만4397명보다 오히려 88명 줄었다. 함평군은 하반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도 만들기로 했고 인구감소원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도 구성중이다.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를 시상하기로 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효과를 볼 지 미지수다. '일자리를 넘치고 주거·양육 격정없는 함평 구현'이라는 슬로건에도, 함평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년도보다 3%(1032명)가 늘어난 올 해 목표(3만5429명)를 달성할 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4만명·3만명 아슬아슬=장흥군은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49세 이하 미혼남녀 중 한 명이 결혼 전 1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결혼 이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500만원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미혼남녀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다.

장흥군 인구는 8월 말 기준 4만24명. 전년도 12월 말 4만669명보다 645명 줄었다. 그러나 5월(3만995명), 7월(3만961명)에는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전남 지역별 인구수 <단위:명>

지역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8월
목포	238,382	237,739	235,002
여수	290,168	288,988	287,250
순천	278,765	278,548	280,342
나주	98,182	104,376	109,159
광양	153,587	155,580	152,330
담양	47,009	47,229	47,225
곡성	30,672	30,400	30,220
구례	27,308	27,412	27,089
고흥	68,601	67,656	66,961
보성	45,349	44,469	43,988
화순	65,848	65,303	64,879
장흥	43,513	40,669	40,024
강진	38,758	37,753	37,094
해남	76,194	75,121	73,954
영암	58,137	57,045	56,214
무안	82,236	82,109	82,559
함평	34,876	34,397	34,309
영광	56,267	55,618	55,045
장성	46,360	46,104	45,811
완도	53,014	52,668	52,323
진도	32,476	32,078	31,853
신안	43,294	42,652	42,343

등을 진행중인 장흥군의 절박함이 엿보이지만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곡성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3만220명. 지난해 12월 말 3만400명이던 인구는 ▲1월 3만349명 ▲2월 3만205명 ▲4월 3만461명 ▲7월 3만341명 등 3만명 선을 아



장흥군은 군청 앞에 '인구 4만 지키기' 플래카드를 내걸고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증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해(4만669명)에 비해 줄고 있다.

슬아슬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50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인구지킴이 TF를 꾸려 '3만 인구유지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1분기(1~3월)만 해도 출생(41명)보다 사망(108명)이 많고 전입(726명)보다 전출(774명)이 많은 상황의 변화는 미미하다. 쉽게 느껴졌던 전 직원 주소 이전 정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주택 부족과 대도시권 주택 청약 문제가 맞물리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고교 기숙사생 주소도 부모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주소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할 수는 없는데...>전남 17개 군(郡) 중 지난해 인구가 늘었던 담양·구례 인구가 감소세가 엿보인다.

담양군 인구는 지난해 2015년 4만7009명에서 2016년 4만7229명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8월 말 현재 4만7225명으로 줄었다. 담양군은 지역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들의 전입 장려시책으로 '독신자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기로 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례도 2015년(2만7308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2만7412명으로 늘었다가 올 8월

말 2만7089명으로 323명 감소했다. 화순군도 '교육이 살아야 화순이 산다'는 인식에서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는가 하면, 출산보육팀 신설에 이어 거점센터 성격의 화순군 출산·양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해 6만5303명이던 화순 인구는 올 8월 6만4879명으로 줄었다.

/함평=황운화기자 hwang@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화순=나성중기자 nsj@

## 씨름하고 농계 잡고...신나는 갯벌축제

무안·영광서 열려

관광객 수천여명 즐겨

생태계의 보고이자 대표자원인 전남의 무안·영광 갯벌을 배경으로 한 축제가 펼쳐져 수천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무안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갯벌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된 무안군 해제면 무안생태갯벌센터 일대에서 '제 5회 무안황도갯벌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황도갯벌 1㎡의 가치'를 주제로 갯벌을 지켜온 지역민들의 '풍요깃발 퍼레이드', 황도갯벌 씨름대회, 올림피아드, 갯벌하늘 장작 연날리기 대회, 희망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낚시·농계잡이와 운저리 낚시 체험은 갯벌에서 직접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영광군 염산면 백바위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 8회 영



무안 황도갯벌축제 기간 중 체험 프로그램으로 낚시·농계잡이와 운저리 낚시 체험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무안군 제공>

광 천일염·갯벌축제'도 5000여명의 여행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영광 갯벌은 겨울철 파도에 쓸려갔다가 이듬해 봄, 새롭게 갯벌이 생성되는 점 등이 특징이다. '질산바다에 풍덩! 천일염 갯벌 추억여

행'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갯벌풋살, 팹배타기, 염전체험을 비롯, 천일염을 축제와 연계해 지역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 6개 기업 참여

28일 취·창업 박람회

영광군은 오는 28일 영광 벤처빌딩에서 '취·창업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투자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젊은층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영광지역 6개 기업들이 참여한다. 해당 기업들은 대마산단 내 자동차부품·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 등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품질관리, 연구직, 사출전문가 등 12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박람회를 통해 채용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장출 장려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 불갑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위치 파악 좌표 41곳 설치

영광 불갑산 일대에 자신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산속 '좌표'인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초행길 등반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불갑산 등산로 일대 41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좌표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산악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치를 확인하고 인명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광군은 특히 불갑산 상사와 축제(15~24일) 기간, 불갑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지점번호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lyee@

###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2개동 (룸 총 46개) 즉시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직매 010-7384-7800

### 영광 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동구 금남로 충창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월요일 개강 - 기초부터 실전까지  
프리직원(파트너) 모집  
062-382-5500